

특별재난지역지원 선제적 대응

익산시, 유관기관 협력기반 수해복구지원 확대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유관기관 협력으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정적 차원에서 공적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 주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성용 익산지사장, 근로복지공단 김은순 익산지사장, 전북에너지서비스 운영현 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신현달 익산지사장, 한국전력 최위경 익산지사장, KT익산법인지사 송경용 부장, 익산대 김충화 대대장까지 총 8개의 기관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피

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추가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체적 절차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주민들의 일상으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방세 면제·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연체금 납부 예외, 의료급여 지원, 산재보험료·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및 연장, 기타 복구지원 등 피해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범위와 방법을 논의했다.

특히 기관장 및 실무 부서장들이 참석해 세부 사항들이 빠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협의됐다.

정현을 시장은 "1차적인 수해복구는 마무리 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호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기관과 협력해 나가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군정비와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손길이 이어지며 조기에 복구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21일 시청 면담실에서 지역 4개 대학교와 '전북시립대학교 군산새만금캠퍼스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조성 힘찬 첫걸음'

군산시, 전북시립대학교 군산새만금캠퍼스 MOU 체결

군산시는 21일 시청 면담실에서 지역 4개 대학교와 '전북시립대학교 군산새만금캠퍼스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호원대학교 강희성 총장, 군장대학교 이계철 총장, 군산간호대학교 강상진 총장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자체와 대학교가 연계·상생해 군산민의 평생학습을 조성하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군산새만금캠퍼스 업무협약식에 참가한 4개 대학교 총장단은 "평생교육 관련 우수 교수진과 인프라를 가진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표 평생학

습도시 군산시와 함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 발전으로 시민의 행복을 함께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평생교육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인문 소양을 길러 내고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군산새만금캠퍼스 업무협약 체결은 군산시가 '더불어 성장하는 지평형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평생교육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대학교들과 상생하는 새로운 평생학습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다이로움, 이렇게 바뀝니다'

소비축진지원금 지급 중단 ·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해지... 총전인센티브 10% 지속

익산시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지침을 준수해 익산다이로움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해 평시 10% 할인율 준수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전년도 매출액 기준 30억원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해지를 5월 말까지 완료토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급격한 할인을 축소에 따른 지역 내 소비 및 경기 침체 우려에 대비해 지역사랑상품권 익산다이로움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소비

축진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고 있었으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지침 준수를 위해 다음 달 1일 사용분부터 소비축진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 30억원이 초과되는 가맹점도 해지될 예정이다.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1만7,600개소 중 매출액 기준 30억이 초과되는 사업장 414개소에 대해, 가맹점 지위 상실 예고,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30일부터 가맹점 해지 조치를 실행한다. 해지된 가맹점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착한페이 앱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익산다이로움 개편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소비축진지원금 지급 중단 및 가맹점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책수당 지급 확대 등을 통해 골목상권 및 다이로움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축진지원금은 폐지되더라도, 다이로움 총전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 혜택은 기존과 다름없이 지속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코로나19 개인 방역수칙 준수 요청

군산시보건소가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보건소에 따르면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월에 주간 600명 정도였던 것이 7월 첫째주 740명, 7월 둘째주에는 973명으로 증가하며, 8월 첫째주 1,861명, 8월 둘째주 2,215명으로 증가했다.

8월 2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16명으로 지난 6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명 당)은 121명이 확진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원인은 정

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제 폐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철 실내 에어컨 사용과 환기 부족, 휴가철 이동 등을 이유로 보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이동량이 많아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많아져 실내의 밀집도가 증가했지만 마스크 착용은 눈에 띄게 준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보건소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방역 수칙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진료받기, 다중이용시설 등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줄 것과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이 길어지고 폭염으로 힘들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시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시립대학교 군산새만금캠퍼스 수강생 모집

군산시가 21일부터 전북시립대학교 군산새만금캠퍼스 교육생을 모집한다.

전북시립대학교 군산새만금캠퍼스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화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하고 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우수한 강사진을 구성했다.

시는 이를 위해 21일 4개 대학교와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북시립대학교는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이 병행된 실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한 알찬 지역 특화교육을 위해 추진한다.

군산대학교는 '군산에서 세계로 떠나는 역사기행'을, 호원대학교는 '드론으로 제작하는 힐링영상 콘텐츠' 등 3개 교육과정을, 군장대학교는 '비밀랩 군산 특화 식품 개발' 등 4개 교육과정을, 군산간호대학교는 '우리 가족

이 꼭 배워야 할 쉬운 긴급 심폐소생법' 등 5개 교육과정, 총 13개 지역 특화교육과정을,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공통과정을 운영한다.

시가 예산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각 대학교에서 13개 지역 특화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과정 운영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참여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4개 모든 대학교 캠퍼스에는 학습매니저를 자체 선발해 학습형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관내 4개 모든 대학교에서 총 13개 교육과정이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선착순으로 명에 학사학위 교육생 141명을 모집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로컬푸드 안전먹거리 인증 2주년 이벤트 진행

군산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군산 안전먹거리 브랜드 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는 2021년부터 지역 우수 농산물을 생산자 정보와 생산 및 품질 관리 체계의 일정한 기준을 통과했다는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SNS 인증샷 이벤트는 인증제 도입 2주년을 맞아 진행하게 됐으며 군산시민 등 군산시 페이스북 팔로워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는 시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군산로컬푸드직매장, 군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육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동군산로컬푸드직매장,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 중 1곳을 방문해 로컬푸드와 '새들군산' 동시 인증 제품 1종을 구입하거나 로컬푸드와 '새들군산' 인증 제품 각각 1종을 구입한 후 사진을 찍고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보건소,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금연 캠페인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17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 예방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했다.

보건소는 금연문화조성 활동과 금연 관련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서비스 홍보를 펼쳤다.

특히 금연을 생각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금연클리닉과 개별 맞춤 상담서비스를 안내했다. 청소년들은 흡연이 미치는 영향과 건강 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며 금연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금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